



국제리뷰

- 지역사회 녹색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여성의 녹색생활 실천사업

김양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가족미래 시나리오와 가족정책의 주요 이슈 전망

김소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사회 녹색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여성의 녹색생활 실천사업 :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여성을 위한 녹색일자리 사업 현황¹⁾

김 양 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면서

2009년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중 '생활의 녹색혁명'은 녹색성장과 여성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사회 녹색커뮤니티 구축에 구심점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녹색생활 실천 확산에 절대적이며 근간이 되고 있다. 녹색성장정책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 지구촌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녹색성장교육, 녹색생활의 실천, 녹색소비 활성화, 녹색마을조성, 생태관광 활성화 등의 추진방향을 갖고 있는 생활의 녹색혁명은 그 실천전략의 부재와 녹색생활 실천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인프라가 미비한 실정이다(권대봉, 2009).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정책의 현실화와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녹색소비 운동에 그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녹색생활이 체화되어 자연스럽게 실천되도록 생태공동체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권대봉, 2009).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는 여성고용정책과 녹색성장을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통해서 여성에게 배제되어왔던 환경과 자연보호 분야의 일자리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녹색커뮤니티를 계획, 실행하고 있다. 2012년 6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 방문을 통하여 정부, 학계, 기업, 단체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여성고용정책과 녹색성장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현장을 볼 수 있었다. 방문 내용의 정리와 분석을 통해서 지역사회 녹색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여성의 녹색생활 실천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¹⁾ 2012년 6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뒤셀도르프, 빌레펠트) 여성을 위한 녹색일자리 사업 현황 조사에 대한 해외출장보고서를 재구성함.

2.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의 성주류화 정책과 프로젝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 (MUNLV)²는 부처 내에 양성평등 본부AGG(Alle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가 있으며, 이는 조직 내의 양성평등 뿐만 아니라 환경 전문분야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성주류화정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


년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성주류화정책 진행과정
198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 여성 회의에서 처음으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라는 용어를 사용함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 여성 회의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담론의 전개 및 발전이 이루어짐.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의 개정을 통해 성 주류화는 유럽 연합 헌법상으로도 인정받고, 정치적인 면으로도 무게가 실림. 유럽 연합은 가입국을 대상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남녀 양성 평등을 정치적 핵심 문제로 삼을 것을 의무화함. 성주류화적용이 유럽 연합 구조 기금을 얻는 데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지정됨.
2000년	성 주류화는 독일 연방 정부의 각 부처의 공동직무규정(GGO: Gemeinsamen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으로 명기되어, 모든 독일 연방 정부 부처는 성주류화전략을 모든 소관 사항에 적용하도록 의무화 됨.
2002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의회의 결안으로 성 주류화의 도입이 전반적인 정책적 원칙으로 지정됨.
2003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광범위한 행정근대화 과정에 성 주류화의 원칙이 통합 적용됨.
2005년	성 주류화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직무 규정의 공식적 내용으로 지정됨.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는 이상의 성주류화 정책에 따라 2003년 9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기후 · 환경 · 농업 · 자연 및 소비자 보호부 (MUNLV) 부처장 회의를 통한 결의로 성 주류화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기후 · 환경 · 농업 · 자연 및 소비자 보호부 (MUNLV) 모든 근무자들은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시작했으며, 각 부처들 마다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관련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각 부처별 근무자들로 다양하게 구성된 '성주류화팀'은 양성평등위원회와 관련 기관 담당부서장의 지휘 아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해당 주제의 일련의 활동에 협력하였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명	기간 및 목표
자연보호 분야로의 성주류화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04.4-2005.5 - 목표 : 성주류화전략을 자연보호와 관련한 홍보, 교육 및 사회과학적 연구에 도입 및 적용하고, 그에 관련한 인력을 그 전략에 맞게 교육시키는 것.

² MUNLV는 Ministerium fuer Umwelt und Naturschutz,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의 약자

프로젝트명	기간 및 목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환경부 인트라넷 (Intranet: 내부 전상망)의 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03.4-2005.6 - 목표 : 최신 전자 중앙 정보 플랫폼(인트라넷)의 조성을 통한 최적화된 정보 접근성의 조성. 최신 기술이 적용된 내부 중앙 정보망(인트라넷)의 재편성으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환경부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이 개선되어야 함. 이때 인트라넷의 형태와 내용이 가능한 한 모든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해야 하므로, 새로운 내부 중앙정보망의 남녀 양성 평등의 추구가 강조됨.
인사 선정 절차상의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 2004년부터 - 목표 : 인사 선정 절차상의 체계를 양성 평등적으로 구성하기. 채용 정보 알림으로부터 인사 고용 결정 까지 일관적으로 남녀 성별의 특성적인 요소로 인한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고 지원자들의 다양성에 적합한 방식이 되어야 함.
활동 프로그램: 노르트라인 베스 트팔렌의 환경과 건강 (APUG NRW: Aktionsprogramm Umwelt und Gesundheit NR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 2000년부터 - 목표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환경과 건강 프로그램 활동(APUG NRW)은 환경문제와 관련한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경계를 초월한 합동작업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치의 시행을 독려함. 이에 있어서 남녀양성평등의 젠더적인 요소의 고려를 목적으로 함.
색소와 페인트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04.1-2005.12 - 목표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있는 색소와 페인트를 다룰 때에 출현할 수 있는 건강상 문제의 개선. 동일한 요인으로 유발되는 문제들도 다양한 삶의 형태 및 조건으로 인해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문제의 평가 방식에 있어서 다방면의 측면을 고려해야 함. 이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색소 및 페인트의 영향력에 대해 알림. 해당 관청 부서와 생산자 및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 및 관련 정보교환의 개선이 필요함.
산업경영체가 지원하는 보육 (B.u.K.: Betrieblich unter- stuetzte Kinderbetreuu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 2004.10부터 - 목표 : 가정과 일의 조화와 양립에 대한 개선점 찾기. 시간제 근무, 교대 근무, 재택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통한 근무시간대의 유연화로 산업 경영체가 지원하는 탁아시설 이외에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추가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함. 이 프로그램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환경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부모들의 자녀양육에의 지원과 직업 활동의 조화로움 균형을 맞추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더 나아가 일자리 만족도와 작업 생산력의 향상을 목표로 함.
아이펠(Eifel) 국립공원 프로젝트 : 성 주류화의 자연보호 분야로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04. 4-2005. 5 - 목표 : 성 주류화 관점을 자연보호 홍보, 교육 및 연구에 도입 적용, 또한 그에 관련된 인력을 성 주류화 전략에 맞게 교육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성 주류화가 자연보호 및 산림관리 전문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어 이행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함. - 대상 : 산림청 공무원, 국립공원에 연관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시민 및 국립공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 관련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등 - 구성 : 성 주류화 관점에서 아이펠(Eifel) 국립공원 방문객에 대한 대외 서비스 구성내용 검토 (예 : 소년, 소년 교육서비스 실시 시 성역할 고정관념 내용은 배제됨, 소년 대상의 동화의 날 행사 실시, 소년 대상의 야생체험 실시) - 결과 및 전망 : 다른 산림청과 자연 보호 분야 기관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성 주류화 관점의 체크리스트 및 도구 개발, 이에 독일 최초로 젠더적 관점에서의 국립공원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본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젠더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일에 대해 사고함으로써 앞으로 국립공원에서의 업무가 총체적으로 개선됨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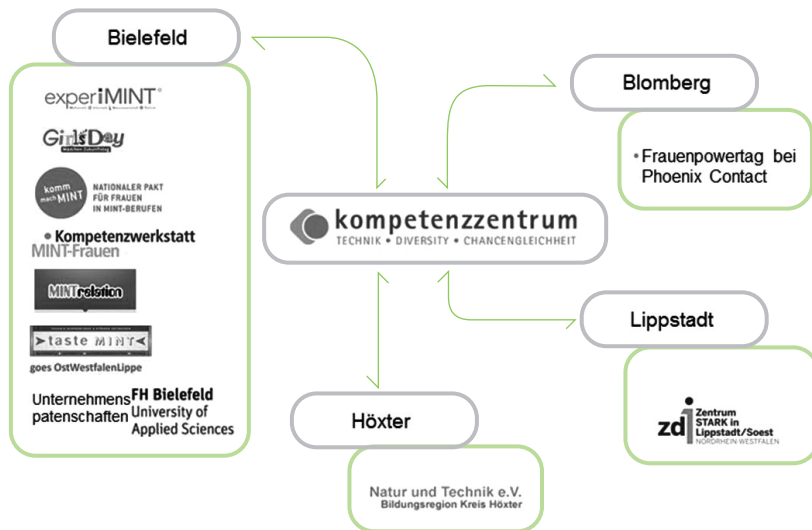
프로젝트명	기간 및 목표
<p>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 프로젝트 보고서 : 환경 · 자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업-여학생과 여성을 위한 지침</p>	<p>- 기간 : 2004.4~2005.5</p> <p>- 목표 : 성주류화전략을 자연보호와 관련한 홍보, 교육 및 사회과학적 연구에 도입 및 적용하고, 그에 관련한 인력을 그 전략에 맞게 교육시키는 것.</p>
	<p>Ministerium für Klimaschutz, Umwelt, Landwirtschaft, Natur- und Verbraucherschutz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p>   <p>Berufe in Umwelt-, Natur und Verbraucherschutz Ein Wegweiser für Mädchen und Frauen</p> <p>Wissenswertes zur Berufswahl</p> <p>〈그림 1〉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환경부(MUNLV) 프로젝트 보고서</p> <p>-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 장관(Johannes Remmel)은 미래사회에 녹색직업과 기술공학계 직업은 다른 직업과 융합이 매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참여가 필요함을 지적, 기후 · 환경, 농업, 자연, 소비자보호 등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직업과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녹색일자리에 대한 여학생과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2007년 여성고용정책과 녹색성장분야를 연계하여 여성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과 자연보호를 위한 직업소개 책자를 발간함.</p> <p>- 보고서 내용 구성 : '환경 · 자연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직업들' 보고서에는 여학생과 여성들에게 추천하는 24가지 녹색직업을 소개하고 있으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관청에서 관할하는 4가지 녹색 직업훈련과정, 직업선택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현장체험 정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p>

3.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 성주류화 정책과 여성의 녹색일자리 프로젝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녹색커뮤니티를 위해 정부, 학계, 기업, 단체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녹색커뮤니티 구성에 주축이 될 수 있는 여성과 여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유입을 위해 주정부와 학계,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녹색일자리는 대체로 자연과학 환경 분야의 일들이기 때문에 여성이나 여학생들에게 기피되어 온다는 사실을 인지한 독일연방정부는 그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젝트 Komm-Mach-

MINT를 수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Komm-Mach-MINT는 독일연방정부의 교육연구부 지원을 받아 기술-다양성-기회균등 우수센터(Kompetenzzentrum Technik-Diversity-Chancengleichheit)에서 수행하고 있다. 기술-다양성-기회균등 연구 우수 센터는 빌레펠트 전문대학의 부속 연구소로서,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 실행 등을 통하여 모든 직업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기회균등의 실현을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40개 이상의 각종 기술 협회 단체, 50개 이상의 프로젝트, 600여개 이상의 지역적이거나 초지역적인 프로젝트 활동으로 연계되어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다. 기술-다양성-기회균등 연구 우수 센터의 수행과업은 크게 3 분야, 디지털 통합, 평생교육과 직업, 자연과학기술 분야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실행되고 있는데, 자연과학기술 분야 연구와 교육분야는 여성들이 기피하는 이공계 분야의 여성인력 양성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림 2〉 독일연방협력센터의 프로젝트 협력 네트워크

: 최소 436,000명의 여학생과 여대생들의 프로젝트 참여를 목표로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 Komm-Mach-MINT도 자연과학기술 분야의 하나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공계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를 동기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 Komm-Mach-MINT의 구체적인 목표는 이과에 관심 있는 여학생들 후원, 이공계분야 전공 여대생들의 비중 증가, 주요 이공계분야로 진출하는 여성인력 증대 등이다. 프로젝트 Komm-Mach-MINT의 활동과정은 2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그중 하나는 여학생들이 이공계 분야의 학문으로 지원하도록 동기화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관련전공자들과 교육 이수자들을 이공계 분야의 기업체 혹은 연구기관으로 진출하도록 진행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네트워크 구축, 관련 프로젝트 연계, 홍보 등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Komm-

Mach-MINT의 성공적인 평가로서 2009년 대비하여 2010년 엔지니어링 대학 전공 신입생들이 약 11% 증가, 물리와 천문학 전공을 선택한 여대생이 약 24% 증가, 기계 공학 전공하는 여대생은 16.9%, 환경 공학 전공은 36.4%, 더욱이 생물학 전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과학분야 전공 선택의 여대생의 증가는 여성들이 환경과 관련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정·재계 및 대중매체에서 젊은 여성들의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며, 여성 전공자들이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제활동과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자연과학계 전공의 신입 여대생 수는 약 40% 증가, 신입 여자 공대생의 수는 약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Saskia Oldenburg(사스키아 올덴브룩) 소개

: 에너지 환경기술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미래사회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법에 대해 명료하고 위트있는 설명을 함으로써 에너지에 대한 흥미를 갖게함.

기술-다양성-기회균등 연구 우수 센터에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또 하나의 인상적인 프로젝트는 Girl's Day(여학생 모임)이다. Girl's Day는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약 1백만 명 이상의 여학생이 참여하고 있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 최대 규모의 직업 오리엔테이션이다. 매년 4월의 마지막 목요일에 열린다.

Girl's Day는 여성들의 진출이 낮은 기술, IT, 자연과학과 관련된 분야의 여성 참여도 향상, 관련 분야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향력 확대,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 궁극적으로 기회 균등과 문화적 다양성이 보장된 직업 분야로의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Girl's Day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업과 학교, 학부모와 여학생들이 협력하고 있다. 기업체 및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여러 관련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행사에 참여할 구성원들 모집, 프로그램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와 교사들은 Girl's Day와 Boy's Day에 대한 준비작업과 후반작업 수행하며, 부모와 보호자들은 Girl's Day 행사에 대한 정보 검색, 당일 학교 수업 면제를 신청한다. 또한 참여자인 여학생들은 홈페이지(www.girls-day.de)를 통해 제공되는 각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온라인, 전화, 단체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Girl's Day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회, 독일연방정부, 협력센터 등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진다. 지역 협회는 각 지역별로 활동연맹을 조직, 기업체, 산업체 및 학교 등에 알리는 것으로 홍보 지원하며, 독일 연방국 각 주정부의 업무 담당자들은 각 지역 협회와 면밀히 협동하며 조문 및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독일 연방 협력센터(Kompetenzzentrum)는 기관·단체·학교 등의 네트워크 구축, 홍보, 조언 등을 하며 프로젝트 홈페이지(www.girls-day.de)의 구성 및 관리, 여학생들의 직업진로에 관련한 주제에 대해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 Girl's Day 관련 행사 전단의 배포, 행사준비와 관련한 행정적인 일, 각 관련 협회에 인터넷 톨과 행사장 중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원한다.

Girl's Day의 진행방식은 기업 및 공공 기관들은 여학생들이 직업 선택 시 잘 고려하지 않는 분야 즉 기술, IT, 자연과학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사무실, 연구소 및 공장을 개방하며, 산업체는 여학생들에게 실제 작업장과 작업 과정을 견학시키며, 맛보기 작업수행 및 다양한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술, IT, 자연과학 분야 롤 모델이 될 만한 리더인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진로 및 커리어 계획에 대한 워크숍을 실행한다.

이상과 같은 Girl's Day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 지역협회, 학교 등의 적극적인 지원결과로서 젊은 여성들의 직업 스펙트럼이 넓어지며, Girl's Day 행사를 통해 10%의 참여 기업들이 젊은 여성들을 기술직 분야에 고용 하게 된다. 또한 기업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 내 양성평등 의식 조성에 현저히 기여하게 된다. 90% 이상의 참여자들이 Girl's Day 행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37%이상의 여학생들이 참여한 기업체 및 기관에서 후에 실습과정이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독일의 'Girl's Day'는 최근 다른 10여 개국의 유럽 국가에서도 벤치마킹 되어 개최되고 있다.

2010년 'Girl's Day - 소녀들의 미래의 날'에는 12만2천 여 명이 넘는 5학년 이상의 여학생들이 참가하여 공학기술, IT, 자연과학과 수공업을 접하고 경험해 보았다. Girl's Day에 참여한 여학생들은 이후 이공계 관련 직업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Girl's Day의 시행이래로는 이공계 전공의 신입 여대생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Girl's Day 모임(2012년 4월 26일)

4. 맺는 말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는 여성에게 기피되어왔던 환경과 자연보호 분야의 일자리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녹색커뮤니티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정부, 학계, 기업, 단체 등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제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실제로 독일 연방정부, 주정부, 환경단체 및 협회, 학교 등에서는 여성과 여학생의 녹색일자리 창출과 녹색산업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유입을 위해 긴밀하고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성하여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조직처럼 연계하여 상호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직업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여성을 환경 분야로 적극적인 유입하고자 홍보, 인사제도 등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각각의 단체 및 협회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들의 교육을 통해 긴밀하고 구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여학생 및 여성의 녹색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녹색산업분야로의 진출을 위해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되고 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에서는 모든 직원의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부 직원의 환경기술직 훈련 과정, 여학생 대상의 환경관련전공 체험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여학생과 여성의 녹색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 그들의 동기를 구체화 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역사회 녹색커뮤니티 구성을 위한 노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작되고 정부가 구심점이 되고 있다. 즉 독일연방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연과학 환경 분야의 여성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Komm-Mach-MINT) 수행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동기화시킴으로써 여성의 녹색일자리 연계를 위한 여론 형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한 녹색환경으로의 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한 예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에서는 여성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과 자연보호를 위한 직업소개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직업과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녹색일자리에 대한 여학생과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 독려 등을 통해 국가차원에서의 여성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이슈화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녹색환경으로의 성장에 여성을 유입함으로써 모든 직업의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한 독일정부의 노력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적용으로 실행되고 있다. 향후 녹색일자리와 여성의 고용을 통한 지역사회의 녹색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 단체, 학계 등의 상호협조적인 네트워크의 위력을 보여준 독일 정부의 사례를 고려해봐야 한다.

참 고 문 헌

- Girls' Day 2012, Bäume pflanzen, Regenwurmfangen, Rechenbauen und Kuehemelken, Ministerium fuer Klimaschutz, Umwelt, Landwirtschaft, Natur-, und Verbraucherschutz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MUNLV, 2012.
- Energie Braucht MINT, Bundesministerium fuer Bildung und Forschung, 2012.
- Komm mach MINT, Nationaler Pakt fuer Frauen in MINT-Berufen, Aufstieg durch Bildung, Bundesministerium fuer Bildung und Forschung, 2012.
- Girls' Day Vision 2027, Erfinde Deine Zukunft, Informationen zur Ausstellung, Kompetenzzentrum Technik-Diversity-Chance-gleichheit e.V., 2009.

가족미래 시나리오와 가족정책의 주요 이슈

김 소 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11~2014년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의 전망」 연구(장혜경·김은지·김영란·김소영)를 수행중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미래방법론을 활용해 가족변화와 관련된 환경 분석과 가족미래 예측 요인을 발굴하였다. 2차년도에는 경제, 과학기술, 정치 등 미래예측요인에 따른 가족변화를 분석해 가족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정책 이슈를 도출한다. 연구진들은 가족미래 시나리오 작성과정과 가족이 직면한 위험요인, 정책 이슈 등을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사연구를 수행한 유럽의 기관과 연구자들을 방문하였다. 가족미래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EU의 FAMILYPLATFORM 연구에 참여한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가족연구소(Austrian Institute for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Vienna)와 핀란드의 가족연구소(Family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Jyväskylä), OECD 가족미래 연구팀을 방문해 면담하였다. 해당국과 유럽 전반의 가족정책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앞의 기관뿐 아니라 핀란드 정부기구인 Government Foresight Network, 프랑스의 인구가족연구소(Institut National Etudes Démographiques), 스웨덴 미래연구소(Institute of Future Studies), 읍살라 대학교(Uppsala University), 스톡홀름 대학교(Stockholm University) 연구자들을 면담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들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미래 시나리오 과정과 사례, 가족정책 이슈 등을 정리해보았다.

2. 미래 시나리오 기법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예측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주목받는 것이 시나리오 기법(scenario planning)이다. 이는 중장기 전략 분석과 기획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시나리오는 미래에 관한 일련의 서사로,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를 묘사한다. 일반적으로 시나리오는 사회트렌드와 사건을 연결해 가능성이 서로 다른 미래 ‘들’ (2~5개의 미래들)을 보여준다(Foresight Horizon Scanning Centre, 2009). 이러한 복수의 시나리오는 미래의 여러 상황과 조건을 포함시켜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이명진 · 최슬기, 2011).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경력과 전문성을 지닌 소그룹의 워크숍과 회의를 통해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양한 전문가들(학자, NGO, 기업 전문가)과 정책입안자, 실행자 등이 토론과 논의에 참여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인데(Foresight Horizon Scanning Centre, 2009)다음에 소개할 EU와 OECD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3. 가족미래 시나리오: EU와 OECD 사례

1) EU의 FAMILYPLATFORM 연구

EU는 2009년~2011년 동안 2035년 미래가족의 복지(wellbeing)를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FAMILYPLATFORM'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는 네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2035년 가족의 미래 모습을 시나리오화하는 작업은 세 번째로 이루어졌다. 시나리오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식 공유를 통해 미래를 창조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인 미래예측방법을 활용했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회의: 핵심요인 도출

먼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유럽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토론하였다. 가족과 밀접한 도전과제들-일과 삶의 균형, 부모역할이나 전통적인 성역할 등-뿐 아니라 경제 이슈, 실업, 이주 등도 포함되었다. 도전 과제를 정의한 후에는 가족 미래에 영향을 미칠 동인을 찾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의견 공유를 위해 그룹 간 멤버들을 교체하면서 각 그룹별로 선정된 동인들을 설명하고, 재조정 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평등(사회적, 문화적, 젠더적, 윤리적 등), 이주, 사회의 교육과 가치, 돌봄 시스템 등 네 개의 동인이 최종 선정되었다.

(2) 시나리오 틀(frame) 구성

시나리오 틀을 만들기 위해 6개월 이상 수차례 논의를 거친 결과 네 개의 핵심동인과 가족관련 영역의 변화 추이가 교차된 틀이 구성되었다. 가족관련 영역의 변화에는 가족구조와 형태, 가족의 발달과정, 국가의 가족정책, 가족관계, 사회적 돌봄과 사회서비스, 사회적 불평등 등이 포함되었다.

(3) 시나리오 정의

핵심요인과 시나리오 틀이 결정된 후 전문가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토론을 통해 모두 4개의 시나리오가 수립되었다. 그들은 핵심요인의 조합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미래 시나리오와 반대되는 시나리오 등 양 극단에 위치한 두 개를 도출한 후 중간적 상황을 보여주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동등한 기회 제공, 완전히 개방된 이주, 다양한 교육/가치, 공적 및 사적 돌봄 서비스가 혼합된 사회이다. 이 시나리오와의 대척점에 있는 시나리오는 불평등 증가, 제한된 이주, 사교육, 돌봄 서비스의 민영화 등으로 교육과 복지가 개인의 부담이 되는 사회이다.

(4) 서사(narrative) 작성

시나리오들이 정의된 후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별로 사회상황과 가족모습 등을 묘사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미래 유럽사회가 어떤 모습일지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로 풀어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때 동성부부가족, 입양자녀가 있는 가족, 무자녀가족, 부부자녀가족 등 가상모델가족을 상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그들의 가족변화와 문제 상황, 정책요구 등이 어떻게 다른지를 서사에 반영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시나리오 중 양극단에 위치한 두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¹⁾

: 동등한 기회-이주의 개방-다양한 교육과 가치-사적 · 공적 돌봄 서비스의 혼합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사회, 경제적 위험 요소는 적고, 강력한 복지 시스템과 풍부한 사회적 결속력을 지닌 사회를 묘사한다. 이 사회는 완전 고용의 사회이며 지속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유럽 내 이주는 제한이 없으며, 이주자에 대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교육이 일반적이며, 교육의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된다. 그로 인해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적 · 공적 돌봄과 공식적 · 비공식적 돌봄 시스템이 혼합되어 균형을 이룬 사회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공동생활 단위로서의 가족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가족원 개인들의 선택 권한이 강화된다. 가족원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무의미하게 하거나 가족들 사이가 멀어지는 상황이 야기되기도 한다. 그리고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세대가 모여 사는 방법 등 개인의 가족책임, 공동생활 등의 의사결정을 위해 가족협상 등이 이루어진다.

시나리오 2

: 불평등의 증가-매우 제한적인 이주-사교육과 가치의 위태로움-돌봄 서비스의 민영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국가 부채로 공공복지가 민영화되어 교육,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시장 또는 공동체를

1) 미래가족 시나리오의 내용은 오스트리아 가족연구소에서 받은 'Familyplatform(2010), Concept Future Scenarios(Unpublished Document)', 자료를 참조로 함.

통해 이용 가능해 진다.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높아져 극도로 양극화된다. 유럽 국가 간 이주는 거의 불가능하며, 가족의 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의 차이가 발생해 불평등이 증가한다. 아동과 노인 돌봄은 사보험과 시장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며, 일부는 공동체가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과 세대 간 협력의 책임이 증가한다. 저소득층은 돌봄의 부담으로 의도적으로 아이를 한 명 갖게 된다. 가족 내 그리고 가족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된다.

이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돌봄 지원이 중요해지면서 가족과 가족구성원들은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에 순응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선택의 자유 제한은 세대 간 또는 부부 사이의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즉 일과 가족의 의무를 동시에 해야 하며, 어떠한 여가시간도 갖지 못하는 ‘실용적 부모’의 출현이 예상되며, 고령의 가족원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 내 긴장이 증가한다.

2) OECD의 가족미래 연구

OECD의 가족미래 연구는 가족구성과 가치 변화에 주목하는 국가들이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작되었다. 2030년 가족미래 시나리오 도출은 EU와 유사하게 가족 및 사회 환경 변화추이 전망과 전문가들의 토론, 토의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

사전 단계로 과거 20년 동안의 가족구성과 형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20년의 변화를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와 동시에 가족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도 고려되었다. 주요 요인으로는 인구, 사회(결혼과 이혼, 교육, 노동시장 등), 기술, 경제 전망 등 네 개가 추출되었다.

시나리오는 각국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한 워크숍에서 개발되었다. 그들은 토론과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시나리오를 개발한 후 투표를 통해 최종 시나리오를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시나리오 매트릭스 구성을 위해 두 개의 축을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축은 정책으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인 요인들로 하위 인구의 증가와 감소 또는 경제성장률의 높고 낮음 등 너무 단순화된 축은 경계하였다. 그 결과 경제성장의 지속성과 교육·성장 등 인간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술의 수용성으로 결정되었다. 그 후 연구자들은 시나리오 틀에 맞춰 4개의 시나리오를 개발되었다. 그룹별로 2030년 사회와 가족변화 모습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시나리오가 작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사이의 유사성을 고려해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관점이 서로 대치되는 시나리오 두 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하나는 ‘황금기(Golden Age)’ 시나리오로, 이 사회는 경제성장의 지속성과 인간중심적 과학기술의 수용성이 모두 높다. 다른 하나는 ‘과거로의 회귀(Back to the Basics)’ 시나리오로 앞의 시나리오와 반대되는 사회를 묘사한다.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황금기(Golden Age)’의 사회상과 가족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금기’ 시나리오²⁾는 세계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을 동력으로 경제가 성장해 안정화되는 사회를

2) 가족미래 시나리오의 내용은 OECD(2012),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자료를 참조함.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근무형태의 유연화로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난다. 그러나 더 많은 부모들이 유급노동에 참여해 시간압박을 경험하며,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요구가 증가한다. 경제적 독립 기회와 개인적 선택의 증가로 새로운 가족형태가 등장하며,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된다. 공공영역에서 개혁이 일어나지만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고소득층 가족은 안정적인 직업과 양질의 교육으로 자녀 돌봄과 가족부양이 가능하며 삶의 질이 높아진다. 저소득층 가족은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을 경험하며, 사보험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와 자선기금 등에 돌봄을 의존하게 된다.

4. 가족정책 주요 이슈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자녀 돌봄과 유급노동의 균형(일-가족 양립)과 성별 역할 분담(남성의 돌봄 참여), 가족형태의 다양성과 이주가족 등에 주목해 가족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별로 정책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스웨덴: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와 이주가족정책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일-가족 균형을 넘어 남성의 가사참여, 돌봄 참여 등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 중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은 주요 이슈이다. 현재 18개월 사용가능한 부모휴가는 주로 여성이 사용하고 있어 정부는 남성의 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나의 방안으로 휴가기간의 1/2 또는 1/3을 남성이 사용할 경우 급여를 더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과정 등이 너무 복잡해 사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정책은 조세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 유리할 수 있다.

아동 돌봄 서비스의 시장의존도는 아직 낮다. 아이들은 1살 이후 90% 정도가 보육시설에 맡겨 길러지며, 가정 내 보육은 거의 없다. 중도우파정부 집권 후 보육시설의 민영화가 추진되었지만 기존 시설이 전환된 것으로, 이들 시설은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는다. 오히려 노인 돌봄 부분의 민영화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스웨덴 사회에서는 가족유형에 따라 경험하게 될 위기는 다른데 맞벌이 가족의 경우는 노동시장요인이 주요인이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강해지면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혼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주는 최근 스웨덴 사회의 주요 이슈로 이주가족 아이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스웨덴에서 자란 아이들만큼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주정책이 남성은 사회적응정책 중심으로, 여성은 가족프로그램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성별 차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프랑스: 유자녀 가족(커플)지원과 가족형태의 다양성 존중

프랑스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비용을 가족지원에 쓰고 있으며(GDP의 3.8%), 좌우파의 정치적 합의(political sensus)로 정권에 따른 가족정책 변화가 크지 않다. 그리고 가족형태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분위기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한 세기 전부터 친 출산(pro-natalist)의 기초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커플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정부 지원은 비용보전과 일(유급노동)과 자녀 돌봄의 조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나뉘진다. 전자는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족수당을 제공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인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후자는 여성의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휴가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현재는 국가 재정의 문제로 보육서비스 제공 연령을 몇 세부터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3) 핀란드: EU의 공동정책과 국가정책의 간극

핀란드 정부는 1990년대 경기침체를 계기로 미래예측을 토대로 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관련 기구인 'Finland Government Foresight Network'를 설치하였다. 그 곳에서는 인구, 경제 등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고, 5개년 계획, 액션플랜 등을 수립한다. 소비경제, 기술 분야에서는 향후 가족의 삶이 'slow family life'와 'fast family life'로 대비될 것이라 예측한다. 즉 65세 이상 은퇴한 건강한 연금생활자 노인 가족과 시간에 쫓기는 맞벌이 가족이 대비되는데 서비스 경제 부분에서 이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 EU는 권역 내 국가 간 정책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자녀출산과 양육 관련 정책도 그 대상인데, 핀란드의 경우 EU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모성휴가와 부모휴가를 가지고 있어 정책의 퇴보를 우려하고 있다.

4) 오스트리아: 유급노동과 돌봄 노동의 선택(일과 가족의 조화)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동일 언어권으로 가족정책 역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두 나라의 가족정책은 2011년에 개혁되었다. 주요 내용은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좋다'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족정책에서 벗어나 여성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일어났다. 하나는 여성이 아이를 돌보느라 오랫동안 유급노동을 섰 후 복귀할 때 파트타임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부모가 일과 가족의 조화가 어려울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과 수당의 결합방식을 다양화한 다섯 가지 정책 옵션 중 하나를 여성 또는 부모가 선택하도록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빨리 복귀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할 경우 추가보조금을 지급한다.

5. 나오며

미래사회와 가족의 변화는 과학적으로 정확히 예측되기 쉽지 않다. 미래가 과거와 현재의 연속선에 있는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인해 불연속적인 궤도를 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하나의 정확한 예측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상상과 검토가 더 중요하다. 이 때 시나리오 개발은 유용한 방법이 된다.

EU와 OECD의 시나리오에서 가족의 미래는 사회 여러 분야와 맞물려 변화하며, 국가의 정책 제공 정도에 따라 가족생활의 양상과 복지 정도가 달라진다. 어떤 가족에게 미래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지만 대안적 해결책(예를 들어 공동체의 결속과 지원)이 등장하기도 한다.

현재 유럽 국가들에서는 일과 가족의 양립, 자녀 돌봄의 문제,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구의 가족미래 연구는 그들과 문화적 배경과 가치가 다른 한국에서 가족미래 시나리오는 무엇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작성되어야 할 것인지, 어떠한 이슈가 제기될 것인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단초를 마련해주었다.

참·고·문·헌

- 이명진, 최슬기(2011).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가족환경변화.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 Foresight Horizon Scanning Centre(2009). Scenario Planning. UK.
- Familyplatform(2010). Concept Future Scenarios(Unpublished Document).
- OECD(2012).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